“잼버리 대회 파행은 모두의 책임”

전북불교계, 전북도청서 성명 발표

금산사 등 주요 사찰서 참여
“분열 아닌 반면교사로” 강조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지역 불교계가 스카우트 잼버리대회의 파행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 불교계가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8월 23일 전북도청 앞에서 진행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를 걱정하는 전북범불교도연합(이하 전북범불교도연합)’ 명의의 성명 발표에는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중앙종회의원 각진 스님을 비롯한 금산사 교구 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정읍 일광사 승천 스님 등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안준아 룸비니불교산악회장을 비롯한 재가불자들도 자리했다.

전북범불교도연합은 진성 스님이 대표 낭독한 성명서에서 “대회기간 전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있었고, 비난과 지적은 관계자들에 대한 준엄한 꾸지람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어디에서 치우치고 절도를 잃어버렸는지 자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큰 견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회의 파행은 중앙정부, 조직위원회, 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가오는 혼란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질타했다.

전북범불교연합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예측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며, 책임 있는 공직자일수록 영욕득실의 좁은 견해를 생각 밖에 두어야만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국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며 “자성과 성찰의 시간에 한쪽을 비난하는 데 힘을 다 써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분열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경솔한 말들을 버리고, 사후에 일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하고 광박하며 동시에 정확함과 세밀함을 함께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이 화합하는 계기로 승화시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경험과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의 종교와 기업들은 세계의 청소년 대원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향유하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지구적인 문제를 걸머지고 있는 미래세대의 총총한 눈망울과 순수한 미소를 기억하며 전 국민의 화합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조계종 前총무원장 원행 스님,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보문종 정혜사 주지 지순 스님, 대한불교용화종 원각사 주지 용성 스님 등 전북지역 불교지도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법사 백중 6재에 승보공양법회 봉행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가 백중 6재를 맞아 통도사 율원스님들과 정법사 사중스님들에게 승보공양을 올렸다.〈사진〉 8월 23일 만불전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광우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전계사 덕문 스님, 율원장 도암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선정 신도회장 등 불자들이 동참했다.

정법사 불자들은 덕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에게 관절보호 의약품과 수건 등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양했다. 또 자비도량 참법기도에 동참한 63명의 불자들이 모금한 대중공양금 400만원과 사중의 성금을 더해 7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어 정법사 영축다도회의 차 공양, 분다리카 찬불단의 음성공양이 이어졌다.

덕문 스님은 “저희 대중은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해 정법사 불자님들의 공덕이 헛되지 않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옥천사 호국정신, 일제강점기에 계속돼”

고성 옥천사, 문화유산 인문학 콘서트



경남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연화산과 옥천사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

오는 11월 19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되는 문화유산 인문학 콘서트는 8월 20일 김광식 前동국대 교수가 ‘승군과 항일 독립운동의 전초기지 자방루’에 대한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9월 3일에는 이정 이화여대 교수가 ‘철제 솥에 얽힌 옥천사 종이 이야기’, 10월 22일에는 최원석 경상 국립대 교수가 ‘고성 연화산과 우리 산의 인문학’, 유근자 동국대 교수가 ‘옥천사와 산내 암자의 불상 알아보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문화재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과 결합해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옥천사 자방루(보물)와 청동시루(유형문화재 제627호), 청련암 철제 솥(문화재자료 제662호) 같은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천사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은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경상남도와 고성군의 지원과 많은 분들의 성원과 동참에 힘입어 올해도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며 “연화산 옥천사와 고성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의미를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강의에 나선 김광식 前동국대 교수는 ‘승군과 항일독립운동의 전초기지 자방루’를 주제로 임진왜란 당시 승병의 거점 역할을 했던 옥천사의 호국정신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임란 당시 승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왜곡됐고 항일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스님들의 업적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옥천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백초월, 이청담, 빅민오, 박문성, 이종천, 신화수, 백석기, 우태선 등 독립유공자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백초월 스님에 대해서는 당시 활동했던 한용운, 백용성 스님과 같은 반열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문화공연과 함께 초청 명사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묻고 답하며 옥천사 문화유산의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큰스님 그림자 다시 새깁니다”

태고종 선암사 선원장
상명 대종사 영결 · 다비


상명 대종사의 영정을 뒤로 다비가 진행되고 있다.

태고총림 선암사 선원장 범청당 상명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지난 8월 19일 선암사에서 엄수됐다.

설선당 앞마당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원로의원 현오 스님, 주지 시각 스님, 차기 주지 승범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원로 · 중진스님들과 문도회장 지각 스님, 선암사 대중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여해 상명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날 영결식은 상명 대종사의 유훈을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다. 설선당에 모신 스님 영정에 참석자들은 헌화하며 대종사를 추모했고, 광주전통불교영산회는 작법 의식으로 영결식을 장엄했다.

의식 후 법구는 미리 마련된 연화대에 안치되고, 참가 대중을 대표해 20여 스님들이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 합송으로 거화와 함께 다비가 엄수됐다.

상명 대종사 상좌인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큰스님은 그동안 수많은 수행과 포교 원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도반을 두셨고, 수많은 대중을 포교하신 큰 스승이었다”며 “우리 종단뿐만 아니라 호남 불교계에서도 큰스님의 입적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종단에서는 더욱 스님의 그림자가 깊이 새겨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은사를 떠나보내는 추모의 말을 전했다.

한편 상명 대종사는 15세에 장성 백양사에서 영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봉하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1965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대승 수계를 받았다. 1965년 백양사 불교전문강원 사교과를 수료하고 1970년 통도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1971년 백양사 교무를 시작으로 광주 금산사 주지(1973), 서울 백운암 주지(1974), 광주 삼정사 주지(1985), 선암사 교육원장(1996), 선암사 주지(2004), 태고총림 정수원 원장(2006) 등을 역임했다.

2015년부터 태고총림 선암사 선원장을 맡아 입적 전까지 선암사 칠전선원 운수납자들이 수행에 전념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상명 대종사는 지난 8월 17일 세수 80세, 법랍 65년으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대학, 20일 동효 스님 초청 특강



(사)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은 선운사 한주 동효 스님을 초청해 여름방학 특강을 개최했다.〈사진〉 8월 20일 전북불교대학 큰법당에서 열린 동효 스님 초청 특강은 〈반야심경〉을 주제로 진행됐다.

전북불교대학 이창구 학장은 “선운사 동효 스님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받들며 공부와 수행을 실천해 오신 존경받는 스님”이라며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를 통해 불교의 진리를 알아 참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했다. 선운사 한주 동효 스님 “공(空)이 ‘참 나’인 줄 모르고 손님인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을 주인으로 알고 살고 있다.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 ‘참 나’를 찾고 인연 업과를 기억하며 수행해야 한다”며 “염불하고 수행해서 업을 비워내고 염불삼매에 들어 참 나를 찾아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수재의연금 기탁 잇달아

전북종무원 · 마이산 탑사 1400여만 원 기탁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마이산 탑사가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재의연금을 기탁했다.〈사진〉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8월 17일 태고종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수재의연금 1427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수재의연금은 태고종 전북종무원의 모금활동을 통해 모금된 성금 427만원과 마이산 탑사의 성금 1000만원으로 마련됐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경북, 충북, 전북지역의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에 태고종 차원으로 종도들의 마음을 모아 수해의연금을 모아 전달하자는데 그 뜻을 같이하고 모금을 진행해왔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전북종도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수해지역 주민들이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상진 스님은 또 “성금을 모아주신 종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른 시일 내에 허심탄회한 대담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수해피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자비를 베풀어주신 종도와 스님, 전법사, 교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수해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원로 종설 스님 다비식 엄수

종국 · 종열 · 덕문 스님 등
문도 · 신도 100여 명 동참


화엄사 원로 종설 스님의 진영에 스님들이 헌향하는 모습.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는 지난 8월 23일 경내 범음료와 다비장에서 화엄사 원로 종설 스님 영결식과 다비식을 엄수했다.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 회주 종열 스님,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화엄사 문도, 신도 등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영결식은 불교의례에 이어 추모입정, 영결법요, 헌다, 헌향, 행장소개, 영결사, 인사말, 발인 순으로 진행됐다.

종국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지난밤에 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달이 큰 바다에 떨어지더니 화엄사의 종설화상께서 환귀본처(還歸本處) 하셨다”며 “낡은 육신 훌훌 털어버리니 그 경계가 어떠합니까. 스님께서야 생사여여 하시고 진리성성 하시겠지만 미혹한 저희들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제야 스님의 자취가 더욱 눈에 선하여 소박한 삶의 모습을 다시 뵙고 싶다”며 “스님께서 남기신 덕화와 자애로운 성품을 다시 되새겨 화엄문도를 원융공동체로 이끌고 사바세상에 자비의 씨앗을 설파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지 덕문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하안거 결제기간임에도 참여해주신 많은 대중스님들에게 감사하다”며 “종설 스님께서는 늘 묵직한 목소리로 저희들에게 덕담 나누시듯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하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결식 마친 종설 스님의 법구는 일주문과 부도탑에서 노재를 지내고 부도탑 위에 마련된 전통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이후 법구를 연화대에 안치한 후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 합송과 함께 거화가 시작돼 이생과의 마지막 인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종설 스님은 1946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1974년 범어사에서 도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7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화엄사 강원을 졸업하고 천은사와 봉암사, 묘향대, 문수대, 상선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이후 천은사 삼일암에서 주석하며 수행정진해오다 8월 21일 오전 11시 법랍 50세, 세수 78세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공군 호국 의상암 이창구 학장 초청법회

부안 공군 제8351부대 호국 의상암이 전북불교대학 이창구 학장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8월 18일 열린 법회는 김윤봉 법사, 부처님세상 백준기 이사장, 전북불교대학 이창구 학장과 학인 20여 명과 제8351부대 김용대 대대장과 불자 장병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전북불교대학은 호국 의상암의 불자장병들을 위해 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창구 학장은 법문에서 “군 생활에서는 제일 힘든 것은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상황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군대가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상황일 것”이라며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매월 두 차례 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김윤봉 법사는 “군 장병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동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